

Curriculum vitae (이력서)



지원분야	프론트엔드 개발자	희망연봉	3,000~3,200 (회사내규에 따름)
성명(한글)	박준석	성명(영문)	Park JunSeok
생년월일	1996.10.11.	휴대전화	010-2313-8636
E - Mail	p.junseok53@gmail.com	비상연락망	010-6357-8636(모)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산이길 48(해당화마을빌라), C동 301호		
포트폴리오 주소	imaginative-truffle-77cbe3.netlify.app		
GitHub 주소	https://github.com/jjunseokk		

Profile Info I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학과(전공)	졸업여부	비고
2012. 03 ~ 2015. 02	곤지암고등학교	정보처리과	졸업	
2015. 03 ~ 2020. 02	연성대학	디지털전자과	졸업	
2021. 08. 27	학점은행제	전자학사	졸업	

Education I (교육이수)

기간	교육기관	과정명
2022.06.30~2022.11.23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모바일 웹 & 앱디자인(웹퍼블리셔, Jquery, vue.js) 스마트 혼합
2022.07.24~2022.08.22	코딩알려주는누나(온라인강의)	HTML/CSS:웹개발의 첫단계
2022.08.22~2022.10.09	코딩알려주는누나(온라인강의)	자바스크립트:실전 웹사이트 만들기
2022.10.13.~2022.11.23	코딩알려주는누나(온라인강의)	리액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는 마지막 단계

Education II (교육내용)

과정명	교육내용
모바일 웹 & 앱디자인(웹퍼블리셔, Jquery, vue.js) 스마트 혼합	프로토타입 제작 및 사용성 테스트, 프로토타입 기초데이터 수집 및 스케치, 디자인 구성요소, 설계 응용, 제작, 프로젝트 완료 자료정리, 결과보고서 작성, 최종보고, 디지털디자인 사후관리, 서비스&경험 디자인 시나리오 개발, 관찰조사, 스마트문화 앱 UI/UX 설계 및 디자인.
HTML/CSS:웹개발의 첫단계	HTML, 웹사이트 구조분석과 효율적으로 웹사이트 구조 제작, CSS, 웹사이트 디자인, BOOTSTRAP을 이용해 모바일 버전의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작,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툴 사용법
자바스크립트:실전 웹사이트 만들기	Javascript의 기본 문법, Javascript(ES6), API를 통한 서버와 소통, 코드 리팩토링, 에러 핸들링
리액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가는 마지막 단계	리액트 컨셉트, Redux, Axios로 API 호출, 리액트 라이브러리

Certification (자격증, 수상내역, 장학금내역)

취득년월	자격증&장학금	발행처	비고
2014.04.24	정보처리기능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2018.10.15	자동차운전면허	서울지방경찰청장	
2019.06.11	Office PowerPoint	Microsoft	
2019.05.29	Office Word Expert	Microsoft	

Profile InfoⅡ (병역 및 취미, 특기)

병역	면제사유	군별	복무기간	취미	특기
현역만기 제대	-	육군	2016.03.22.~2017.12.21	운동	볼링

Work Experience (인턴 및 근무 경력, 아르바이트)

기간	회사명	직책	업무내용
2018. 06 ~ 2019. 07	KB L&T	실습생	무선통신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2019. 10 ~ 2022. 04	뉴빛테크놀러지	주임연구원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ILS(종합군수지원), 신뢰도, 정비도 ,가용도 검사
2023. 01 ~	두드림진/엑스페론	IOT 연구원	기술교범 작성, 기구 운용 자사 앱, 자사 무인자판기 화면, 자사 웹 앱 프론트엔드 개발

Technology (보유기술)

기술분류	보유기술
Programming Language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CSS(Cascading style sheet), Javascript(ES6)
Framework	React, jQuery, Bootstrap, react-redux, redux toolkit, React Native
Tooling/ DevOps	GitHub, Slack, jira
Environment	Window, MacOS

Self-introduction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p>- 끈기가 있다면 실패는 없습니다.</p> <p>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끈기'라는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Front-End 교육과 여러 가지 웹 프로젝트로 '해당' 역량을 쌓아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갈 것입니다.</p> <p>디지털 전자학과 학부 시절 졸업 프로젝트로 Embedded를 사용한 음주측정기를 개발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웹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60시간의 "모바일 웹 & 앱디자인(웹퍼블리셔, JQuery, vue.js) 스마트 혼합" 과정에 참여해 웹 개발 기초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760시간의 과정으로 웹을 이해하고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를 개발하기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p> <p>그래서 저는 부족한 역량을 채우기 위해 하원 후 온라인강의를 통해 웹개발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Javascript, React를 사용한 Front-End를 학습하며 웹 개발 역량을 길렀습니다. Front-End 개발에 있어서는 컴포넌트를 최대한 재사용하며 효율적으로 UI를 구성하고 코드와 파일을 간소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한 인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p>
성격소개	<p>- "오히려 좋아"</p> <p>이 말은 제가 전 직장에 다닐 당시 잦은 야근과 출장이 있는 제게 동기들이 힘드냐고 물을 때 농담으로 종종 하던 말입니다. 그만큼 저는 놓여있는 상황에 불만과 짜증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격입니다.</p> <p>상황을 바꿀 수 없는 곳에서 짜증과 불만보다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아 팀원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해나가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지며 긍정사고를 가지고 일하는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에서 군사무기를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이슈의 일차원적인 해결이 아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이슈들은 끝까지 추적하며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 직장 동료들과도 즐겁게 일하곤 했습니다.</p> <p>그 결과로 어떠한 문제든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p>
직무역량	<p>"모바일 웹 & 앱디자인(웹퍼블리셔, JQuery, vue.js) 스마트 혼합" 과 온라인강의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제작한 프로젝트는 "API를 사용한 뉴스페이지", "API를 사용한 현재 날씨페이지", "랜덤 숫자 맞추기", "Todo List" 등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제작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p> <p>이 경험을 통해 Javascript, JQuery, vue.js, React의 재무역량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더욱더 공부하여 Front-End의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작해 재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Front-End 개발자가 되겠습니다.</p>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p>현재 SW 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은 아무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용자가 보기에 편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Front-End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정보들이 한눈에 보기 편할 수 있도록 또, 반응형 웹으로 화면 크기가 다양해도 사용자가 정보를 찾기 편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웹을 구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개발을 하며 기술의 흐름을 따라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러가 적게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p> <p>입사 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통해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쌓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성능에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성장하겠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 더욱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p>

위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3월 08일

성명: 박준석

